

(미래정책연구실, 2009.11.16)

□ 배경

- OECD가 발표하는 국가별 농업보조지표인 PSE(생산자지지추정치)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이 국제적으로 제기돼 왔음.
- OECD는 한국산 쇠고기에 대한 PSE 산출법이 잘못됐다는 우리 측의 주장을 수용, 2001년 이후의 우리나라 PSE 수치를 수정
 - * 10.26~2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농정시책작업반 회의에서 개정

□ PSE란?

- PSE(Producer Support Estimate)는 1986년 OECD에 의해 개발된 지표로 농업지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수단
 - 국제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농업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 속에 만들어짐.
 - OECD는 회원국 뿐 만 아니라 비회원국까지 총 43개국의 PSE를 매년 측정
- PSE는 ‘소비자와 납세자로부터 농업생산자에게 이뤄진 연간 이전 총액’이라 정의
 - 정부의 금전적 재정지출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, 관세로 인한 농산물 국경보호, 농업부문 조세감면, 신용보증 등 금전적인 이전이 아니더라도 이전으로 추정되는 모든 것을 포함
- OECD는 개별 품목 생산액이 총 농업생산액의 1% 이상인 품목에 대해 PSE를 측정
 - 우리나라는 쌀·보리·콩·쇠고기·돼지고기·닭고기·달걀·우유·배추·마늘·고추 등 11개 품목이 대상임.

○ 각국 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PSE를 농업생산액으로 나눈 ‘%PSE’가 주로 사용됨.

* 예컨대, %PSE가 60%면 정부 재정지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농업 생산액의 60% 상당 금액이 정책적으로 지원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

□ PSE의 문제점

○ WTO 농업협정은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이 있어야 시장가격지지가 있는 것으로 보나, PSE는 정부의 시장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외 가격 차이를 시장가격지지로 추정

- 국내외 가격차는 환율·품질 격차·소비자 기호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함에도 **국내외 가격차를 모두 보조금으로 산정**

* 한우가격이 100g에 6,000원이고 수입쇠고기가 2,000원이라고 가정하면 4,000원을 시장가격지지를 통한 보조금으로 산정하여, 품질 격차는 전혀 고려하지 않음.

○ 우리나라의 PSE는 2007년 기준으로 60%로 아이슬란드 61%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두번째로 높으며,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 EU의 PSE는 26%, 미국은 10%에 불과

- 반면, PSE에서 정부 재정지출 비중은 우리나라가 9%에 불과한데 비해 EU는 50.8%, 미국은 36.2%에 달함.

- 즉, 우리나라처럼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가 큰 국가는 농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아주 적음에도 PSE 수치만 볼 때 아주 높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음.

- 시장가격지지를 제외하면 농업인구 1인당 PSE는 호주가 우리나라의 2배, 캐나다와 미국이 6~7배, 노르웨이가 10배 정도 높게 됨.

□ 금번 수정내용

○ 과거에는 국내외 시장가격차를 이용해 산출하였으나, 이번에 수정된 방식은 관세만 이용해 산출

- 이번 합의로 2001~07년 평균 쇠고기 PSE가 62%에서 29%로 감소
 - 전체 농축산물 PSE도 62%에서 58%로 감소할 전망

□ 양우 개선과제

- 정부가 관세 이외에는 시장가격지지를 위한 개입을 하지 않다는 점을 OECD에 적극 알리고, 국산과 수입산 간 품질 차이를 인정받아 PSE를 낮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.
- 쇠고기 이외의 다른 농축산물의 PSE 산출방식도 개선되어야 함.
- 우리나라 PSE 측정품목수를 현행 11개에서 수출품목을 포함하여 확대해야 함.
 - * 현재 EU는 18개, 일본은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측정.